

광주 청소년 재범률 41%...전국 3번째

최근 5년 1만3006명 검거
전남은 34.4%로 10위

지난 8월 13일 광주동부경찰은 차량탈이탈한 A(18)군을 구속하고 공범인 10대 청소년 6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A군 등은 지난 7월 28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에 주자 중인 토스카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2주동안 광주·여수·담양·화순 등에서 차량 7대(6000여만원 상당)를 훔쳤다. 주범인 A군은 절도 등 전과만 17회에 달해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 1월 동부경찰에 공동상해로 붙잡힌 B(19)군 등 10대 2명도 구속됐다. 이들은 광주의 한 클럽에서 다른 10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군은 폭행 등 동종전과 7범이었다. 지난해 9월 C(19)군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저렴하게 팔 것 처럼 속여 돈만 가로챘다가 광주광산경찰에 붙잡혔다. C군은 사기 5범 등 전과 15범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이처럼 광주에서 범죄 청소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재범률도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범죄 검거 인원' 자료에 따

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은 총 35만2908명에 달했다. 지방청별 범죄소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경기남부청이 7만63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만785명, 부산 3만1390명, 인천 2만3471명, 대구 1만8376명, 경남 1만7455명, 충남 1만5232명, 경북 1만4350명, 광주 1만3006명, 경기북부 1만2471명, 대전 1만2289명, 전북 1만1963명, 전남 1만957명, 충북 1만932명, 강원 1만228명, 울산 9021명, 제주 4604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특히 검거 현황 대비 재범률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재범률(검거인원/재범인원)에

따르면 부산이 45.6%(재범인원 1만4320명)로 가장 높고 대전 43.9%(5395명), 광주 40.7%(5293명) 순이었다. 전남은 34.4%(3764명)로 전국 지방청 중 10번째였다. 전국평균은 35.2%였다. 이밖에 최근 5년간 전국 유형별 범죄소년 검거현황은 절도(10만6196명), 폭력(9만6888명), 특별법범(7만1503명), 지능범죄(5만937명) 순이었으며 유형별 재범 현황은 강도 62.6%, 절도 41.4%, 지능 35.6%, 폭력 32.6%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5, 해질 17:21, 달뜨기 04:55

출근길 우산행기세요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광주	비온 뒤 맑음	12/20	보성	구름 많음	8/19
목포	비온 뒤 맑음	13/21	순천	구름 많음	11/20
여수	구름 많음	14/20	영광	비온 뒤 맑음	11/21
나주	구름 많음	9/20	진도	구름 많음	12/20
완도	구름 많음	13/21	전주	비온 뒤 맑음	11/20
구례	비온 뒤 맑음	8/18	군산	비온 뒤 맑음	10/20
강진	구름 많음	11/21	남원	비온 뒤 맑음	8/19
해남	구름 많음	9/20	흑산도	비온 뒤 맑음	15/22
장성	비온 뒤 맑음	9/1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	서~북서	0.5
남부	면바다 남서~서	0.5~1.0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	북서~북	0.5
서부	면바다(동) 북서~서	0.5~1.0	북서~북	0.5~1.0
남부	면바다(서) 북서~서	0.5~1.5	북~북동	0.5~1.5

◇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낮음: 지외선, 보통: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32, 18:46	01:04, 13:24
여수	간조	만조
	02:02, 14:10	08:13, 20:29

◇ 주간 날씨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	☀	☁	☀	☀	☀	☀
10/20	7/21	11/18	9/16	8/18	8/15	6/15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22일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들이 광주시 서구보건소에서 문진을 받고 있다. 이번 접종은 만 50세부터 만 64세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현배 기자choi@

“학교 설치 공기청정기 효과 검증 안돼”

전교조 광주지부 지적
시교육청 하반기 28억 투입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기청정기 학교 설치 사업'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비로 올 하반기에만 28억원을 편성하고 대상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 특수학급 등에 설치가 되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그 이후에는 중·고교까지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공기청정기 설치 대수는 모

두 7700대, 120억원 규모라고 전교조 광주지부는 전했다. 문제는 교실이나 강당 등 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청정기가 일반 가정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제주도교육청이 주관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검증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한 결과 '공기청정기 가동 효과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공기청정기를 튼 교실과 튼튼 않은 교실을 6시간 연속 비교 측정해 결과, 미세먼지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교실도 있었지만 5개 학교에서는 되레 공기청정기를 튼 교실보다 튼튼 않은 교실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낮게 나왔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미세먼지가 7~85% 감소한 곳도 있었다. 지난해 말 경기도 환경공학과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35개 초등학교 61개 교실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교실 칠판 옆에 1대를 설치, 가동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10%를 넘지 않았고 교실 앞뒤로 2대를 설치해도 20%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 구매를 결정하는 학교 현장에 공기 질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서 공기청정기 업체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 배 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교단에서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초대 '바람직한 광주 교사' 고 김용근 선생 선정

2018년 광주교사상 연구발표 중간 보고회가 24일 오후 3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쌍촌동)에서 열린다.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는 광주 시교육청으로부터 광주 교사들의 표상이 될 만한 선배 교사를 발굴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 등 절차를 거쳐 석은 김용근(1917~1985·사진) 선생을 '바람직한 광주교사'로 선정했다. 중간 보고회에서 고형원 전남대 명예교수가 '바람직한 광주교사상의 조건'을 주제로 기조 발표한다. 은유근 광주대 신방과 교수, 김태수 광주대 명예교수, 이승우 가천대 명예교수, 최연석 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황광우 작가, 우에무라 다카시 전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가톨릭대 초빙교수)는 김용근 선생의 삶, 교육방식, 교육철학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재 사실을 최초 보도한 다카시 교수가 발표할 '승실중학교 시대의 김용근·윤동주·문익환'이라는 발표문이 눈길을 끈다. 김용근 선생은 광주일고와 전남고, 광주고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일제강점기 총독암살단 조직 혐의 등으로 2차례 옥고를 치렀고 5·18 당시에는 군인들로부터 제자들을 숨겨주다가 수감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대 바람직한 광주교사로 김용근 선생이 선정됐다. 광주 교사와 학생들이 본받아야 할 교사들을 꾸준히 발굴해 표상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백종원의 골목식당' 역대 협찬 인천 중구청 내사

경찰이 SBS TV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측에 역대 협찬금을 지급한 인천시 중구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 중부경찰은 SBS 프로그램 '골목식당'과 관련해 중구를 내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중구가 '골목식당' 제작진에 총 2억원의 협찬비를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예산 집행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골목식당-인천 신포시장 정년물' 편은 올해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방송됐다.

중구가 이 방송을 유치하기 위해 협찬비 명목으로 2억원을 SBS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촬영이 진행된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이 협찬비를 제공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중구 측에 요청한 방송 협찬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가 입수돼 내사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내사 중인 자금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 최근 6년 헌혈기념품 구매 690억 써

대한적십자사가 최근 6년간 헌혈기념품 구매에 69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영화관관련 753만2274장을 구매하는데 350억원을 사용하는 등 기념품 구매에

총 690억원을 썼다.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빵집·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611만 1620개를 구입했고, 204억원을 썼다. 그 외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키보드 등 소품을 사는데 135억원, 음악감상이용권과 스피커 등 1억7000만원을 지출했다. /채희중 기자 chae@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부: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